

콩고 민주공화국 농업의 현황과 과제 *

전 승 훈

(한국개발전략연구소 이사장)

박 선 희

(한국개발전략연구소 선임기획관)

1. 서론

농업은 토지에 인간의 노동력을 더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보면 토지가 방대하고 자연 조건이 좋으며 노동력이 풍부한 국가들은 농업생산을 통하여 풍부한 식량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특히 DR콩고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넓은 경작 가능한 토지와 방대한 열대우림, 풍부한 수자원 및 어업자원, 다양한 기후와 지형 등 농업발전에 유리한 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농업생산이 부족하여 인구의 70%이상이 식량부족 상태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좁은 토지에서도 높은 농업생산성을 시현하면서 풍부한 식량과 소비생활을 영위한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현상은 기이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DR콩고의 농업개발의 여건과 개발현황을 살펴보고, 그러한 여건에서 어떻게 농업 및 농촌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를 DR콩고 정부의 정책을 기초로 고찰하면서, 한국과의 협력 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

* (sychun@kds.re.kr 02-539-6150, shpark@kds.re.kr 02-539-7989).

2. 국가일반 및 개발 연앙

2.1. 국가 개요

DR콩고는 아프리카의 중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총 국토 면적이 남한의 24배에 달하는 규모인 2,344,858km²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DR콩고의 국경은 10,730km에 이르며 총 9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서-중앙아프리카, 동-남아프리카를 잇는 통로가 되는 국가이다. 행정구역은 총 11개의 주(province), 21개의 도시(ville)와 145개의 군(territoire)으로 이루어져 있다. DR콩고의 수도는 킨샤사(Kinshasa)이며, 그 이외 주요 도시로는 루뎀바시(Lubumbashi), 음부지마이(Mbuji-Mayi), 카탕가(Katanga), 키상가니(Kisangani) 등이 있다.

그림 1 DR콩고 지도



자료: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2). Country Report.

250여개 이상의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DR콩고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인구대국이며, 현재 인구는 7천5백만 명으로 그 중 69.6%는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의 인구증가율(2.54%)이 지속될 경우 2020년에는 DR콩고의 인구가 약 8천5백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풍부한 천연자원과 농업의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는 도시에 집중되고 있어서 현재의 도시인구(2천5백만)는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4천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World Bank, 2013).

표 1 콩고민주공화국 국가 개요

| | | | |
|-------|--|----------|--|
| 국 명 |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Congo) | | |
| 위 치 | 아프리카 중부 내륙(앙골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우간다, 콩고공화국 등 9개국과 접경) | | |
| 수 도 | 킨샤샤(Kinshasa) | | |
| 주요 도시 | 루뎬바시(Lubumbashi), 고마(Goma), 음부지마이(Mbuji-Mayi), 카탕가(Katanga), 키상가니(Kisangani) | | |
| 행정구역 | 11개 주 | | |
| 기 후 | 열대성 기후, 연평균 25.2°C | | |
| 주요자원 | 커피, 설탕, 야자수 기름, 차, 코코아, 카사바, 망콩, 옥수수, 다이아몬드, 금, 구리, 코발트, 콜탄 등 | | |
| 종 족 | 반투(Bantu, 50% 이상), 수단(Sudanais), 피그모이드(Pygme), 나일(Nilotique) 등 약 250여개의 부족 | | |
| 면 적 | 2,344,858km ² (남한의 약 24배) | GDP | 209억 달러(2013년) |
| 인 구 | 7,550만 명 (2013년) | 1인당 GDP | 276달러(2013년) |
| 정치 체제 | 공화제 (대통령 중심제) (5년 임기, 연임 가능) | 대외 정책 | 개방정책 |
| 주요 정당 | 재건민주국민당(PPRD) 콩고해방운동(MLC), 두뎬바연합당(PALLU) 재생을 위한 사회운동(MSR) 재생을 위한 운동(FR) 민주를 위한 콩고렐리(ROD) | 산업 구조 | 농업 44.3%, 산업 21.7%, 서비스업 34% (2013년 추산) |
| | | 한국과의 수교일 | 1963.4 |
| 독립일 | 1960.06.30 (벨기에) | 통화단위 | 콩고프랑(Congolese Franc) ('12: FC = 100 centimes, '13: 1 USD = 910 FC) |
| 종교 | 가톨릭(50%), 기독교(20%), 김방구교(10%), 이슬람교(10%), 기타(10%) | 언어 | 공식언어: 프랑스어, 린갈리어, 스와힐리어, 키콩고어, 취루바어 |

자료: CIA World Factbook (2014), BCC (2013), World Bank (2012/13), EIU (2012)중 항목별로 최신자료 활용.

DR콩고는 브라질에 이어 세계 2위의 열대우림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수자원의 52%에 해당하는 풍부한 수자원을 갖고 있다. 또한 16,000km에 이르는 수로가 있고, 수력 개발 잠재력은 약 100,000MW이며, 이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다(World Bank, 2012). 그 밖에도 동·식물을 포함한 생명의 다양성을 가진 자연환경이 여전히 보존되어 생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인정받고 있다. 광물자원 또한 종류도 다양할 뿐 아니라 매장량도 상당하다. 코발트의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53%, 공업용 다이아몬드는 34%를 차지한다. 그 외에도 콜탄, 구리, 금, 아연, 철, 망간, 니오븀, 리튬 등의 광물자원과 석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의 보존량이 상당하다(USGS, 2011).

이렇게 볼 때, DR콩고는 큰 발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평화정착을 바탕으로 정부가 개발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하나의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2.2. 경제여건과 연왕

DR콩고는 이런 풍부한 자연자원과 방대한 영토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고채무 최빈국, 정치사회적으로는 취약국가(fragile state)로 분류되고 있다. 1인당 GDP는 276 달러로 세계 229개국 중 228위이며, 국민의 71%가 절대빈곤에 처해 있다.¹⁾ 인간개발 지수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640만 명 이상이 식량위기상태에 있으며 5세 이하 유아의 절반 이상이 만성적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에 의하면 DR콩고의 국가 거버넌스는 세계에서 아주 낮은 수준이다²⁾.

이는 DR콩고의 역사적 배경에 근거한다. DR콩고는 정치적 내분과 오랜 분쟁으로 경제·사회기반 시설의 붕괴와 국가 사회기반시설의 와해를 겪었고, 동부지역의 반군 세력은 계속적으로 정세 불안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DR콩고는 내전³⁾ 기간 동안 연평균 -4.5%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으나, 2003년 정치적 안정 이후로는 연평균 6.2%의 GDP 상승률을 보였다. 내전 직후 경제·사회발전 기반재건을 위한 해외 원조가 증가하였고, 2010년 고채무빈곤국 외채탕감프로그램(High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s, HIPCI)으로 약 120.3억 달러의 부채탕감지원을 받으면서 경제적 복구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DR콩고의 국가재정은 자원수

1) 하루 평균 1.25달러 이하의 소득수준

2) World Bank, World Governance Index 2011.

3) 1차 콩고내전(1996-1997)은 로랑 카빌라가 르완다 및 우간다의 지원을 받아 모부투 대통령의 독재정권에 맞서 일으킨 반란으로서, 모부투정권을 무너뜨리고 집권하게 된다. 2차 콩고내전(1998-2003)은 로랑 카빌라대통령 집권 이후 자신을 지지해 준 르완다와 우간다세력을 콩고에서 몰아내려하자 이에 반발한 르완다와 우간다 반군의 공격으로 발발하게 된다. 차드, 앙골라, 나미비아, 짐바브웨가 콩고 정부군을 지원하고, 브룬디가 우간다와 르완다 반군을 지원하면서 국제적으로 확산됨. 유엔의 중재로 2003년 중단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동부 변경지역에서 지속된 종족 간 분쟁과 반군세력 M23과의 분쟁은 DR콩고 국가적 불안 요인 및 발전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원자재가격의 변동에 취약하며, 정부 구조조정을 통해 공공재정 관리 능력이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정부 통치력이 여전히 미약하다. 오랜 기간 취약한 국가재정과 인적역량, 극히 저조한 외국인 투자, 원조에 의존한 경제 유지 등의 한계로 콩고는 여전히 빈곤과 취약성(fragility)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IMF, 2013).

DR콩고 정부는 2012년 정부행동계획 2012-2016 을 통해 성장, 고용, 소득 및 복지 증대를 기본목표로 하여 국가의 연 경제성장률을 두 자리 수로 끌어올리고 2015년에 경제성장률 15%달성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DR 콩고의 재정수입은 경상수입의 비중이 52%에 불과하고, 차관이나 해외원조자금에 의한 재정 수입 규모는 44%나 차지하고 있다. 낮은 조세수입으로 인해 해외로부터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세수부족으로 인해 국가개발재원 확보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표 2 참조>.

표 2 DR콩고 재정수입통계

단위: 백만 콩고프랑

| 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
| 총수입 | 2,629,307 | 5,300,391 | 6,296,598 | 6,609,171 |
| 1. 경상수입(A) | 1,480,889 | 2,318,770 | 3,066,786 | 4,143,292 |
| - 관세수입 | 588,500 | 928,503 | 1,087,205 | 1,500,000 |
| - 내국세수입 | 636,830 | 908,504 | 1,253,266 | 1,617,755 |
| - 비조세수입 | 255,558 | 481,762 | 726,313 | 1,030,535 |
| - 원유생산수입 | 136,946 | 297,773 | 373,687 | 407,621 |
| 2. 특별수입 | 117,000 | 386,623 | 218,245 | 117,000 |
| 3. 국외수입 | 1,031,418 | 2,594,997 | 3,011,566 | 2,348,878 |
| - 예산수입 | 217,761 | 376,630 | 602,458 | 328,871 |
| - 투자사업수입 | 813,657 | 2,218,767 | 2,409,107 | 2,025,003 |
| 총지출(B) | 2,629,307 | 5,300,391 | 6,296,598 | 6,609,171 |
| 재정수지 (A-B) | -1,148,418 | -2,981,621 | -3,299,812 | -2,465,879 |
| 재정자립도(%) (A/B) | 56.3 | 43.7 | 48.7 | 62.7 |

자료: DR콩고 재무부 자료(2012).

DR콩고의 경제구조를 보면 농업이 전체의 44.3%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공업이 21.7%, 서비스업이 34%를 차지한다.⁴⁾ 전체 인구의 7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데 비

해 농업분야의 GDP 기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DR콩고의 기업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총 민간 부문의 80%를 차지하며 수도인 킨샤사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민간 기업은 주로 광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DR콩고의 은행 시스템이 열악하고 자금이 부족하여 기업들은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에너지 조달의 어려움 및 낮은 노동생산성, 기술력이 낮은 산업 경쟁력도 산업 발전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AfDB, 2013).

DR콩고의 총 수출액은 2012년 기준으로 88억7천2백만 달러이며, 주요 수출 품목은 다이아몬드, 구리, 금, 코발트, 목재, 원유, 커피 등이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같은 해 기준으로 중국 54%, 잠비아 22.6%, 벨기에 5.7% 등이다. 총수입액은 81억8천7백만 달러로 주요 수입 품목은 식량, 광업 자재, 교통 수송 장비, 연료 등이다. 주요 수입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22.3%, 중국 15.3%, 벨기에 8%, 잠비아 6.9%, 짐바브웨 5.6%, 프랑스 4.9%, 케냐 4.7%이다(CIA World Factbook, 2014).

DR콩고의 이러한 경제구조에서 볼 때, 빈곤극복과 경제개발을 위해 기대할 수 있는 조건은 농업과 광물자원 수입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DR콩고는 다른 사하라 이남 국가와 마찬가지로 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가까운 장래에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하기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의 두 가지 조건 중에서도 광물자원 수입은 그 자체가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농업이 핵심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광대한 농토와 풍부한 수자원 및 다양한 기후를 가지고 있음은 DR콩고로서 하나의 행운이라 할 수 있겠다.

3. 농업여건과 개발연망

3.1. 농업환경

DR콩고의 자연적 농업환경을 보면 기후, 지형, 토양 모두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경작 가능 면적이 광대하다. 첫째, 기후는 지역에 따라 적도, 다습열대, 건기를 포함한 열대, 해양성 기후 등 크게 4개의 기후대로 분류된다.

연평균 기온은 동부산간지역을 제외하고 대체로 약 25도이며, 연중 기온의 변화가 작다. 적도를 기준으로 다른 기후적 양상을 보이는데, 적도 북쪽의 우기는 4월~10월이며 건기는 12월~2월이고, 적도 남쪽의 우기는 11월~3월이며, 건기는 4월~10월이

4) CIA World Factbook 2013.

다5). 이런 기후적 특성으로 남반구와 북반구에서 번갈아가며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고, 지역에 따라 농업이 다양한 양태로 나타난다. 강우량은 연평균 1,500mm로 매우 풍부하여 연간 이모작을 하기에 충분하다.

둘째, 지형적 특성 및 토양을 살펴보면, DR콩고의 북부와 남부는 고원, 동부는 산악 지형, 중앙 지역은 분지로 되어있다. 중앙분지는 거대한 열대우림이며, 남부 및 동부의 고원지대에는 사바나가 펼쳐져 있다. 영토가 넓은 만큼 토양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해안지역(Kinshasa, Bandundu, Bas-Congo)은 주로 사질토로 이루어져 있고, 적도 인근 내륙지역(Equateur)은 점토질, 동부의 산악지역(Sud-Kivu, Nord-Kivu, Province Orientale)은 화산토질로 이루어져 있다(KDS and KOICA, 2011).

표 3 DR콩고의 농업면적

| 구분 | 단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농업면적 | 천 km ² | 257 | 257 | 257 | 258 | 258 |
| 농업 면적 비중 | % | 11.3 | 11.3 | 11.4 | 11.4 | 11.4 |
| 경지 면적 | 천 ha | 6,700 | 6,750 | 6,790 | 6,800 | 6,800 |
| 1인당 경지면적 | ha | 0.12 | 0.11 | 0.11 | 0.11 | 0.11 |
| 곡물생산면적 | 천 ha | 1,976 | 1,977 | 1,979 | 1,980 | 2,273 |
| 영구작물 재배 비중 | % | 0.3 | 0.3 | 0.3 | 0.3 | 0.3 |
| 산림면적 | 천 km ² | 1,551 | 1,548 | 1,544 | 1,541 | 1,538 |
| 산림면적 비중 | % | 68.4 | 68.3 | 68.1 | 68.0 | 67.9 |

자료: World Bank, Country data.

셋째, 농지 면적의 특성을 살펴보면, DR콩고의 전체 국토면적 2,345,409km² 중 경작 가능한 면적은 약 8,000만 ha이다. 그러나 넓은 경작 가능 면적에도 불구하고 <표 3>에서 보듯이 불과 약 11%만이 농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 실제 경작면적은 약 680만 ha이다. 실경작지 중 경종작물 경작면적은 약 30%이며, 대부분은 초지재배지이다. 이 중 관개가 가능한 면적은 400만ha이며, 실제로 관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은 사탕수수나 벼를 재배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약 13,500ha에 불과하다. DR콩고는 비옥하고 넓은 토지가 있어 농업성장의 잠재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으나, 개간능력의 한계 등 낙후된 농업기술로 인하여 1인당 평균 경작 면적은 0.1ha 정도로 대부분 1 ha

5) CIA, The World Factbook 2011.

미만의 영세 농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자연적 조건만 보면 농업생산이 풍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회 및 제도적 환경은 아주 열악한 것이 농업생산 정체의 요인이 되고 있다. 농업에 좋은 토지 등 자연적 조건에 불구하고 식량이 부족하고 다수 국민들이 기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사람, 제도, 농업 기반 문제에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농업생산의 주체인 농민의 행태에서부터 농업생산 투입 요소, 가공, 유통체제, 농업 금융 및 기반에 이르기까지 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전 가치사슬에서 절대적 취약 내지는 부족 상태에 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 농업 및 농촌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에 있어서는 그 심각성의 정도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깊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농민 의식: 농업의 주체인 농민의 의식과 행태가 농업발전에 있어서 기본 요소인데,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농민들은 오랜 식민지 지배와 내전 그리고 사회주의 물결, 오랜 기간의 외국 원조 등의 특수한 역사적 환경에서 농민의 의식과 행태가 형성되어 왔다. 둘째, 토지 제도: 이들 국가에 있어서 토지는 국유이며, 나라에 따라서 실제 소유권의 상당 부분을 부족장이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토지 소유 관계가 농민의 영농 의식 및 농업 생산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다. 셋째, 농업생산 투입 요소: 농업 생산에 있어서는 금융, 종자, 생산 기자재 등이 투입이 필요하나 빈곤 국가의 상황에서 농민들에게 이들 투입 요소에 대한 접근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넷째, 농가공 및 유통 체제: 농작물은 수확 후 관리, 가공을 거쳐서 유통 체제를 통하여 최종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데, 이러한 가치사슬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다섯째, 농업 인프라: 농업의 생산 및 유통에 있어서 필요한 관개, 전력, 수송 시설 등이 아주 미비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제도적 및 사회적 환경에 기인하여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이 나름대로 각각 천혜의 농업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이 오랜 기간 동안 정체에 머무르고 있고 그에 따라 빈곤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DR콩고 정부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러한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기에는 역량이 미흡하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취약성 내지는 절대적 결여의 여건 하에서 어느 한 부분에 제약된 개발역량과 재원을 투입해 보아야 효과를 내기 어렵고,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은 어떠한 정부에게도 없다. 국가 혼자서 감당할 능력이 못되니 국제사회에서 이를 돕는다.

3.2. 농업연망

3.2.1. 농산물 생산 연망

이상과 같은 농업여건에서 농산물 생산현황을 살펴본다. DR콩고의 주요 농산물은 주식인 카사바를 비롯하여 옥수수, 서류, 플랜틴 바나나, 사탕수수 등이다<표 4 참조>. 과거에는 고무, 팜오일, 차, 키니네 등의 농산품 생산이 활발하였으나 내전 등을 거치며 현재는 생산이 저조하다.

표 4 DR콩고의 식량작물 생산량 변화(2005-2010)

| 구분 | 단위: 톤 | | | | | |
|---------|------------|------------|------------|------------|------------|------------|
|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카사바 | 14,974,470 | 14,989,440 | 15,004,430 | 15,019,430 | 15,034,450 | 15,049,483 |
| 옥수수 | 1,155,260 | 1,155,490 | 1,155,720 | 1,155,950 | 1,156,180 | 1,156,410 |
| 벼 | 315,480 | 315,830 | 316,180 | 316,530 | 316,880 | 317,231 |
| 강낭콩 | 110,300 | 111,270 | 112,250 | 1,133,240 | 114,240 | 115,247 |
| 땅콩 | 368,110 | 368,740 | 369,370 | 370,000 | 370,630 | 371,263 |
| 플랜틴 바나나 | 487,110 | 487,980 | 488,810 | 489,640 | 490,470 | 491,304 |

자료: SNSA(Service National des Statistiques Agricoles), L' Agriculture congolaise en quelques chiffres.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DR콩고의 농식품 가공업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킨샤사를 제외한 지역에는 농산물 가공업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킨샤사 내에도

표 5 DR콩고의 농가공품 생산량 변화(2005-2010)

| 구분 | 단위: 톤 | | | | | |
|----------------------|---------|---------|---------|---------|---------|---------|
|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로부스타 커피 | 31,990 | 31,960 | 31,930 | 31,900 | 31,870 | 31,840 |
| 아라비카 커피 | 5,119 | 5,916 | 5,109 | 5,104 | 5,099 | 6,447 |
| 카카오 | 5,630 | 5,590 | 5,550 | 5,510 | 5,470 | 5,431 |
| 차 | 1,570 | 1,378 | 1,980 | 2,220 | 2,490 | 2,479 |
| 담배 | 4,053 | 4,184 | 4,058 | 3,937 | 3,819 | 3,709 |
| 통나무(m ³) | 391,321 | 380,238 | 401,065 | 364,568 | 238,111 | 451,167 |
| 팜오일 | 25,223 | 20,931 | 24,467 | 16,478 | 25,659 | 7,825 |
| 키니네 | 4,743 | 4,352 | 4,198 | 3,674 | 3,471 | 3,209 |
| 고무 | 9,762 | 5,721 | 11,687 | 11,328 | 11,326 | |

자료: SNSA(Service National des Statistiques Agricoles), L' Agriculture congolaise en quelques chiffres.

맥주 제조회사 2개소, 담배제조회사 1개소, 커피제조회사 1개소 등 소수의 가공공장이 있을 뿐이다. 전반적으로 농산물 가공업 기반이 취약하여 DR콩고 정부는 농업발전계획을 통하여 농가공산업 육성 및 가치사슬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KDS and KOICA, 2011).

3.2.2. 축산업 현황

DR콩고의 동물성 단백질 소비는 그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콩고인의 연간 동물성 단백질 소비량은 15kg에도 미치지 못한다. 단백질 섭취와 가계소득원의 다각화를 위해 축산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축산업 중에서도 양계는 생산주기가 짧은 장점으로 DR콩고 전반적으로 가장 활성화 되어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형태의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축사의 부족, 질병에 대한 대응 및 사료나 약품 등 투입요소의 부족으로 생산성이 좋지 못하다. 양, 염소 및 돼지 또한 이와 유사한 환경 하에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DR콩고 정부는 종자개선, 농업부산물 활용, 질병 예방 및 치료 개선 등의 지원을 통해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PNSA, 2010).

3.2.3. 농산물 수급 및 수출입 현황

광대한 경지가능 면적, 풍부한 수자원 기반에도 불구하고, 식량수요가 2,500만 톤인데 비해 생산량은 2,000만 톤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부족분은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현재 인구의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성이 낮아, 주요 식료관련 필수품목을 수입에 의존하는 무역역조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DR콩고의 농산물 수출은 1960년대 GDP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교적 활발했으나 그 이후 감소해왔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주식인 카사바를 제외한 각종 식량작물과 고기류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출액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향신료, 커피생두, 담배, 밀가루, 팜유 순이고, 수입의 경우 밀, 밀가루, 닭고기, 원당, 전지분유 순이다. 수출과 수입의 총액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전체 농산물 수입이 수출액을 넘어서는 무역 역조현상이 있었다. 이는 주로 농업 생산 기반과 농산물 유통 관련 기반 파괴에 따른 지역 간 농산물 수급불균형에 기인한다.

표 6 수출 농산물과 수입농산물 현황(2011)

| 순위 | 수출품목 | 수출액 | 수출량 | 수입품목 | 수입액 | 수입량 |
|----|---------|--------|--------|--------|---------|---------|
| | | 천 달러 | 톤 | | 천 달러 | 톤 |
| 1 | 향신료 | 18,000 | 3,868 | 밀 | 141,492 | 459,901 |
| 2 | 커피생두 | 15,541 | 4,483 | 밀가루 | 101,016 | 140,736 |
| 3 | 미가공담배 | 3,206 | 1,165 | 닭고기 | 89,123 | 66,384 |
| 4 | 밀가루 | 3,061 | 14,064 | 원당 | 81,360 | 102,378 |
| 5 | 팜유 | 2,973 | 13,350 | 전지분유 | 57,308 | 10,316 |
| 6 | 건조천연고무 | 2,630 | 831 | 식가공품 | 56,413 | 18,193 |
| 7 | 밀겨 | 2,374 | 12,001 | 제분가공품 | 41,301 | 13,953 |
| 8 | 원당 | 2,300 | 3,500 | 정제당 | 39,378 | 46,836 |
| 9 | 코코아생두 | 2,274 | 818 | 몰트 | 28,904 | 47,036 |
| 10 | 팜핵유 | 1,200 | 800 | 식물성유 | 27,400 | 22,500 |
| 11 | 절임채소 | 1,196 | 593 | 팜유 | 25,892 | 21,052 |
| 12 | 담배 | 969 | 213 | 옥수수가루 | 24,793 | 59,726 |
| 13 | 신선채소 | 428 | 192 | 토마토소스 | 21,438 | 14,095 |
| 14 | 염장소고기 | 404 | 432 | 무알콜 음료 | 18,603 | 21,422 |
| 15 | 밀가루 | 100 | 430 | 돼지고기 | 15,464 | 10,318 |
| 16 | 식가공품 | 96 | 53 | 설탕과자 | 14,674 | 6,264 |
| 17 | 차류 | 90 | 35 | 맥주 | 13,860 | 13,601 |
| 18 | 냉동채소 | 55 | 29 | 칠면조고기 | 13,778 | 11,443 |
| 19 | 맥주 | 38 | 9 | 페이스트리 | 12,785 | 7,911 |
| 20 | 사료용 찌꺼기 | 16 | 45 | 해바라기씨유 | 12,552 | 6,619 |

자료: UN 식량농업기구(FAO), FAOSTAT.

4. 농업정책과 발전의 과제

4.1. 농업발전의 목표와 정책 방향

4.1.1. 정부 행동계획 2012-2016(Action plan)

2012년 카빌라 대통령의 신정부는 DR콩고의 발전 및 부흥을 위한 비전 및 현대성 혁신이라는 2030년까지의 비전에 입각하여 정부행동계획 2012-2016을 수립하였다. 광업, 에너지, 석유, 통신, 임업, 환경부문과 더불어 농업을 핵심경제부문으로 보고 부처의 개혁과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다. 농업분야에 대한 주된

목표는 ① 경제성장에 대한 농업의 기여도 강화, ② 국가의 식량안보 재구축, ③ 농·어촌 내 빈곤 및 불안정성 감소, ④ 식량생산증대이다. 세부 계획은 <표 7>과 같다.

표 7 정부 행동계획 2012-2016의 농업분야 계획

| 농업분야 계획 | |
|--|--|
| 1. 농업(농산물 생산) | |
| 1.1. 식량생산 증대를 통해 2015년까지 기초식량 자급자족 달성 | |
| - 농업의 기계화 | |
| - 농학연구 기반시설 개선 | |
| - 농업생산요소 지급 | |
| - 수확 후 관리 기술 증진 | |
| 1.2. 농어촌 인구 동원 및 관리를 통해 가구당 경작 면적 1ha 달성 | |
| 1.3. 농업주체, 청년 실업층 및 퇴직자의 농업생산 분야로의 직업화 장려 및 자금능력 제고 | |
| 2. 어업 | |
| 2.1. 민간부문 자원 제고로 산업적 어업 재활성화 | |
| 2.2. 권장규격 어망 사용, 어류 생식을 위한 어업폐업기간 준수 및 지정구역 보호로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 |
| 3. 축산업 | |
| 3.1. 민간농장 및 소규모 가족농장 창설 및 개발지원으로 기금류, 양, 염소, 돼지 등 짧은 주기의 축산 강화 | |
| 3.2. 내전으로 피해 입은 가족의 재번식을 통해 축산 재활성화 | |

자료: Programme d' Action du Gouvernement 2012-2016.

4.1.2. 국가농업투자계획 2013-2020(Plan National d'Investissement Agricole, PNIA)

국가의 만성적인 영양실조와 식량위기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성 향상, 그리고 민간투자 동원을 위한 비전으로서 DR공고 정부는 국가농업투자계획 2013-2020 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DR공고의 농업 GDP를 6% 상승시켜 농업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가치사슬 발전에 기반을 둔 농업과 비농업분야 성장을 함께 아우르는 포괄적인 성장전략으로서 적용 범위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다. PNIA 하에서 농업 및 농촌 투자는 다음과 같은 성장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① 식량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 부문 발전과 농민 및 기타 관련 종사자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농산업의 발전
- ② 연구개발 향상과 연구개발 결과의 이해관계자 공유
- ③ 인력과 기관의 능력 향상 및 통합을 위하여 농업 부문에 대한 정부 영향력 강화

④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부문의 취약성 감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PNIA는 총 5개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18개의 하위 프로그램과 66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원칙들을 적용하고자 한다.

- ① 농업 발전과 관계된 공공 및 민간의 역할과 통치력
- ② 지역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 투자 계획의 효율적 활용
- ③ 가치사슬(Value-chain)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농업과 농산업의 근간 마련
- ④ 성 평등과 굿 거버넌스의 주류화
- ⑤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인력 양성
- ⑥ 사회적·환경적 제약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이 가능토록 하는 노력 등

PNIA의 실현을 위한 총 예산은 57억 달러이며, 이 중 가장 큰 비중(64%)을 차지하는 부분은 농업 및 농산업 발전 촉진 프로그램이다. 그 다음으로 농업 연구 및 개발과 교육, 인력 및 공공기관의 능력 향상, 식량 및 영양 보장과 전략적 식량비축,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순이다<표 8 참조>.

표 8 PNIA(2013-2020)의 예산 할당

| 프로그램 | 예산(백만 달러) | 예산(%) |
|--|-----------|-------|
| 프로그램 1. 농업부문 및 농산업(agribusiness) 발전 | 3652.5 | 64% |
| 1.1. 농업식물분야 발전 | 1936.7 | |
| 1.2. 축산분야 발전 | 630.8 | |
| 1.3. 어업분야 발전 | 166.1 | |
| 1.4. 농기업 클러스터 개발 | 904.9 | |
| 1.5. 농산물의 품질 및 규격관리 | 14 | |
| 프로그램 2. 식량 및 영양안보와 전략적 식량비축 관리 | 536.9 | 9% |
| 2.1. 정보체계 및 식량위기 조기경보 시스템 강화 | 318.2 | |
| 2.2. 영양실조 퇴치 | 29 | |
| 2.3. 식량취약성관리 및 전략적 식량비축 조직 관리 | 189.7 | |
| 프로그램 3. 농업교육, 연구 및 확산 | 738.3 | 13% |
| 3.1. 혁신적기술개발과 연구 조직 지원 | 394.5 | |
| 3.2. 지문 및 농촌지도조직 개발 지원 | 143.8 | |
| 3.3. 농업교육기관 지원 | 200 | |

표 8 PNIA(2013-2020)의 예산 할당 (계속)

| 프로그램 | 예산(백만 달러) | 예산(%) |
|--------------------------------------|-----------|-------|
| 프로그램 4. 농업거버넌스, 성평등과 인적 및 제도적 역량강화 | 607.3 | 11% |
| 4.1. 농업분야 증진을 위한 정치적·법적 환경 개선 | 43.9 | |
| 4.2. 농업농촌개발부 개혁의 사후 점검, 인적 및 물적 역량강화 | 282.5 | |
| 4.3. 농민조직, 시민단체, 민간분야의 기술적·조직적 역량강화 | 83.5 | |
| 4.4. 농업농촌분야 조정, 모니터링 및 감시조직 역량강화 | 91.6 | |
| 4.5. 성평등 및 농촌여성의 자립역량강화 | 105.8 | |
| 프로그램 5. 기후변화대비 | 195.8 | 3% |
| 5.1.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대책 실시 | 175.8 | |
| 5.2. 기후 위기관리 | 20 | |
| Total | 5,730.8 | 100% |

자료: PNIA(Plan National d' Investissement Agricole) 2013-2020.

4.1.3. 농산업단지(Agricultural Business Park)

ABPC(Agricultural Business Park Corporation)은 민관이 파트너십을 맺어 농산업에 초점을 맞춘 특별경제구역으로서 DR콩고 총리실의 주도 하에 계획되었다.

DR콩고 정부는 농업발전의 장애 요인을 ① 시장 접근성 약화, ② 취약한 권력 구조, ③ 인적 자원의 부재, ④ 취약한 정부의 개발 프레임이라고 분석하고,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고자 농업개혁 정책의 일환으로서 대규모 농산업단지(Agricultural Business Park) 개발을 내세웠다. 이 대규모 농산업단지는 총리실 산하에 집행 기구들을 두고 각 지방에 설치하여 이곳에서 농업뿐 아니라 축산 및 낙농, 양어장까지 경영한다는 구상이다.

이 계획은 다자기구, 민간 투자자, DR콩고의 중앙 및 지방정부가 협력으로 농업 허브를 건설하여 소규모 농민, 지역 주민, 거대 농산업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농업 부문 발전을 위한 근간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BPC는 국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식량생산이 가능토록 하며, 나아가 DR콩고가 다시 주요 농산물 수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농업 지도센터, 지역 기반시설, 에너지 관련시설, 보건 센터, 주택, 교통인프라 등에 약 15억 달러가 5년에 걸쳐 투자될 전망이다. ABPC의 지원은 소규모, 중간규모, 대규모 농장 모두에게 지원되며, 고객은 협동조합과 비협동조합으로 나누어진다. 협동조합은 지역 농민들로 구성되어있으며, 비협동조합은 1,000ha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농산업 인큐베이터, 농산업 기업, 대규모 상사 등과 5~20ha의 토지를 소유한 소규모 및 중간규모 농민을 포함한다. DR

콩고 정부는 수도 킨샤사를 중심으로, 바콩고(Bas-Congo)지역, 에콰퇴르(Equateur)지역, 오리엔탈(Oriental)주, 남키부(Nord Kivu)주, 카사이(Kasai)주 일대에 농산업단지 위치를 20여 군데로 정하였다(Goldberg외, 2013).

DR콩고 정부는 식량위기를 해결하고 농업발전을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왔다. 정부의 의욕적인 개발계획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 증가율은 3%에 그쳤으며 여전히 인구의 대다수가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농업 분야의 수출액은 1995년에 3억3천4백만 달러였으나, 지속된 내전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불안정으로 2003년 430만 달러로 감소하였고, 그 후 성장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2012년 수출액은 5,600만 달러에 그쳤다. 그동안 지속적인 정치적 불안정에 따른 행정조직 미비와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국가개발정책이 제대로 구현될 수 없었다. 농촌도로, 농기계, 관개시설 등 농업농촌분야의 사회기반시설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며, 영농방식이 영세하고, 국토면적이 방대한 DR콩고의 여건을 고려할 때, 정부의 새로운 개발 및 농업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려면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4.2. 농업 · 농촌개발의 과제와 협력방안

4.2.1. 농업 농촌개발의 과제

DR콩고 농업 개발은 여전히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농업에 유리한 자연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단 11%의 토지만이 경작되고 있으며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인구가 약 70%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식량자립이 어려워 수요의 약 20%에 해당하는 약 500만 톤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국제 식량가격 상승으로 인해 식량 수입의존도가 높은 콩고는 큰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인구의 70%가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다.⁶⁾ North Kivu 지역의 경우 10명중 6명이 식량안보 위협상태에 처해있으며, 이는 2012년의 10명당 3명 수치보다 더욱 악화된 것이다. 1인당 열량 섭취량은 FAO 권고량인 2,500kcal에 훨씬 못 미치는 1,500kcal이며 인구의 23%는 비(非)전분류의 식량을 섭취하고 있다. 또한 5세 이하 유아의 반 이상이 만성적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 그 결과 DR콩고는 2012년 UNDP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와 IFPRI의 세계기아지수(Global Hunger Index, GHI) 최하위권(178개국 중 177위)에 랭크되었다. 더욱이 농업분야 연간 성장률은 3%에 그치는데 비해 인구증가율이 2.54%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식량부족 문제는 더 심각해 질 것이다.

6)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Food Security Index 109개국 중 109위(2014).

DR콩고의 농업발전은 90년대 내전으로 인한 도로와 전력시설 등 기반시설의 파손으로 대단히 어렵게 되었고, 현재에도 농업발전을 위한 제반 시설이 열악하여 여전히 농업발전의 제약으로 작용한다. 세계은행은 DR콩고 농촌 빈곤의 핵심요인으로 생산요소(자본, 농업투입요소, 기술지원)의 결핍을 지적하고 있다(World Bank, 2008). 생산요소의 결핍은 교통인프라 부족, 이원적 토지제도의 제약, 농업농촌관련 정부조직의 관리 문제, 치안 등의 문제와 결부되어 농업발전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DR콩고의 농업·농촌개발의 과제를 크게 여섯 가지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① 농산물 수급 및 가공 문제, ② 농산물 유통 및 교통 시설 문제, ③ 농업 노동력의 숙련도 향상, ④ 농업금융의 접근성 확보, ⑤ 민간자본 참여의 어려움, ⑥ 이원적 토지제도의 제약.

1) 농산물 수급 및 가공문제

DR콩고의 주요 곡물 현황을 살펴보면 쌀과 밀의 수입량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9 참조>. 쌀은 DR콩고 내에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 쌀 생산량은 약 20만 톤이나, 수요에 미치기엔 부족하여 매년 10만 톤 이상이 수입되고 있다. 밀은 DR콩고 농산물 수입에서 수입액과 수입량 모두 1위를 차지하는 품목이며, 국내 생산량은 9천 톤에 불과하다. 현재 DR콩고는 주식인 카사바를 제외한 각종 식량작물, 육류 등은 상당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농산물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 DR콩고 농민들은 초보적인 전통 저장방식으로 농산물을 보관한다. 즉 흙, 대나무, 야자나무 잎 등으로 만든 초보적인 저장수단으로 옥수수, 쌀, 카사바 등을 보관하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저장 체계와 야생동물이나 벌레, 습기, 바람 등으로 인해 농가의 손실이 크다.

농산물 가공업은 수도 킨샤사를 제외하고 전무한 데, 농산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어려운 현실은 농민의 생산의욕을 저하시켜 장기적으로 농업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DR콩고에는 맥주제조회사 2개소, 제빵회사 1개소, 담배제조회사 1개소, 커피제조회사 1개소, 과일주스 제조회사 1개소, 조미료제조회사 1개소, 생수제조회사 3~4개소, 소시지 가공공장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들의 주식인 카사바의 경우 소규모 재래식 시설에서 제분하거나 가정에서 직접 가루를 내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 도정은 마을단위 재래식 도정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KDS and KOICA, 2011).

DR콩고 농업의 무한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구매력과 수입상품 때문에 시장

표 9 DR콩고의 주요 곡물 수급

| 품목 | 구분 | 단위 | 2009/2010 | 2010/2011 | 2011/2012 | 2012/2013 | 2013/2014 |
|-------|------|------|-----------|-----------|-----------|-----------|-----------|
| 옥수수 | 수확면적 | 천 ha | 1,350 | 1,350 | 1,695 | 1,725 | 1,700 |
| | 생산량 | 천 톤 | 1,200 | 1,250 | 1,345 | 1,425 | 1,400 |
| | 수입량 | 천 톤 | 10 | 10 | 5 | 10 | 10 |
| | 수출량 | 천 톤 | 0 | 0 | 0 | 0 | 0 |
| | 단수 | 톤/ha | 0.89 | 0.93 | 0.79 | 0.83 | 0.82 |
| 쌀(정곡) | 수확면적 | 천 ha | 420 | 420 | 420 | 420 | 420 |
| | 생산량 | 천 톤 | 198 | 202 | 202 | 200 | 200 |
| | 수입량 | 천 톤 | 100 | 115 | 110 | 125 | 115 |
| | 단수 | 톤/ha | 0.75 | 0.76 | 0.76 | 0.75 | 0.75 |
| 수수 | 수확면적 | 천 ha | 10 | 10 | 10 | 10 | 10 |
| | 생산량 | 천 톤 | 6 | 6 | 6 | 6 | 6 |
| | 단수 | 톤/ha | 0.6 | 0.6 | 0.6 | 0.6 | 0.6 |
| 밀 | 수확면적 | 천 ha | 10 | 10 | 10 | 10 | 10 |
| | 생산량 | 천 톤 | 10 | 10 | 10 | 9 | 9 |
| | 수입량 | 천 톤 | 375 | 375 | 375 | 375 | 400 |
| | 단수 | 톤/ha | 1 | 1 | 1 | 0.9 | 0.9 |

자료: 미국 농무부 (<http://www.fas.usda.gov/psdonline/>).

상황이 불확실하고 농업생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 또한 구축되어 있지 않다(KDS and KOICA, 2011). 킨샤사를 제외한 지역에서 농산물 가공업이 전무하여 지역적 불균형이 심각하며, 이런 여건으로 농민들의 생산 의욕이 저하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을 증대시켜 식량 공급을 늘리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농업생산을 증대시키는 길은 농업생산에 있어서 노동 생산성을 높이거나 농지의 외연적 확대의 두 가지이다. 우선, 현재의 영농이 거의 인간의 육체적 노동에 의존하고 있음에 비추어 농기구 및 현지 수준에 맞는 농기계의 보급이 긴요한 것으로 보인다.

2) 농산물 유통 및 교통 시설 문제

DR콩고의 농산물 취급상인은 크게 자가 수송수단이 없는 소규모 이동상인, 자가 수송수단을 가진 운송업자, 소매를 위한 지역사무소나 점포를 소유한 기업, 비영리 판매 기관, 농업회사 등 크게 다섯 부류로 분류된다. 그러나 운송 기반이 열악하고 농산물 저장시설 등 농업관련 시설 또한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유통이나 물류가 원활히 이루

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불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기관이나 재원의 결핍도 농산물 유통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열악한 농산물 유통은 과도한 유통비용발생, 정보제한으로 인한 가격왜곡 등으로 농산물 가격의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농산물 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간 농산물 가격 격차는 농민이 대다수인 농촌지역의 소득 및 생활수준에 큰 격차를 발생시킨다.

DR콩고의 교통 시스템은 매우 열악하여 농산물 운송비용이 과도하게 늘어 비교적 운송이 쉽지 않은 농산물의 마케팅 비용도 증대시키고 있다. 열악한 교통시스템과 운송비용의 부담으로 큰 타격을 받는 소규모 농민들을 위한 농산물 생산지를 농산물 집결지, 농산물 가공센터, 시장 등과 연결시킬 수 있는 교통시스템 뿐만 아니라 전력과 수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통합적인 기반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요소에 대한 농가의 접근성 개선, 농산품 유통 및 판매체계 개선, 도로인프라 개선, 농산품 시장 활성화 등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가치 사슬에 걸친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농업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개발전략의 구현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있다.

3) 농업 노동력의 숙련도 향상

DR콩고에서 숙련된 인력 부족은 농업을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편적 현상이다. DR콩고에서 농업 역량 개발 프로그램은 주로 농과 대학, 국가 기관, 연구소 등에서 이루어져 왔다. 농업농촌개발부에 농촌교육을 담당하는 농촌지도국(National Extension Service, SNV)이 있으나, 정부 예산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각 지역별 SNV 사무소와 시범농장 건립을 지원하여 농업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으나, 세계은행은 2000년대 초 내전으로 인하여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SNV는 예산확보 문제로 인하여 사실상 국가적인 농업교육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현재 지방의 농촌지도교육은 주로 해외 원조기관과 현지 NGO들의 활동에 크게 의존되고 있으나 사업 주체들 사이의 부조화와 비지속성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DR콩고는 매우 광대하며 농촌마을은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정보가 마을에 전파되는데 한계가 있다. 농업교육과 정보제공을 통해 농민들의 생산성 및 수입을 증대시키고, 농촌지도 및 인적자원역량강화를 위한 농촌지도 활동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농촌지도사의 역량강화와 지속적인 농업 기술의 지도가 필

요하다. 한국이 주력했던 농촌지도사업(Extension service)은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4) 농업 금융의 접근성 확보

DR콩고의 농촌금융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된 상태이며, 농민들은 영농자금이나 생활 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에도 돈을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며, 소득이 증가되더라도 이를 저축하여 자산을 형성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KDS and KOICA, 2013).

사하라이남 지역에서 대안적 금융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는 (Mobile Finance Service) 기반 부족으로 인하여 2014년 현재 DR콩고에서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농민들에게 금융 서비스의 접근이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열악한 금융 서비스는 다음의 이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교통, 통신 기반의 부족으로 인하여 킨샤사에 집중되어 있는 은행에 물리적으로 접근이 어렵다. 둘째, 대부분의 농민들은 교육 부족으로 인하여 금융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 셋째, 현재 45%에 이르는 높은 금리를 소농들의 경우 감당하기가 어렵다. 조사 결과 일부 NGO의 소액대출금융(Micro Finance) 조차도 이율이 35%를 상회하여 농민들은 상황이 어렵고, 이는 대출 기피 현상으로 이어진다.

현재 DR콩고 정부는 예전에 중단된 농업전문금융기관을 재설립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열악한 정부재정상황으로 인하여 아직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⁷⁾.

농업은 타 산업에 비하여 자연의 영향을 크게 받아 농업생산은 불확실성이 크고, 자본의 회임 기간이 길어서 일반 금융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특히 영세농가의 경우는 대출을 위한 담보확보도 어려우며 높은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다. 이에, 저리의 영농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농업자재비용에 대한 융자, 장단기 영농자금의 지원, 농업기계화 자금 등을 전달할 수 있는 농업금융기관의 설립이 검토되고, 농촌지역의 마이크로 금융시스템도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민간자본 참여의 어려움

DR콩고의 광대한 영토에 효과적인 경작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투입에 의한 기업영농이 필요하다. DR콩고는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장으로 상당한 농산품 수출을 경험했었다. 그러나 1973년 시작된 자이르화정책(Zairianisation 또는 국유화정책)으로 외국인의 소유였던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장은 콩고인 소유로 돌아갔고, 후에 국가가 다시 사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거치면

7) KOICA 농촌종합개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현지 조사 시 면담 참조

서 대부분의 대규모 농장의 운영이 중단되었고, 지속적 분쟁의 영향으로 많은 농장지역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로까지 방치되게 되었다. 또한 지속된 내전과 정치적 불안정을 겪으며, 농업의 기반시설의 부족(에너지와 교통), 취약한 정부 통치력과 기업경영 규정, 불충분한 숙련 노동자, 높은 금융비용 등의 원인으로 인해 농업생산이 감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기업농에 대한 투자는 현재의 취약한 자본형성, 농업기술, 그리고 경영 능력 하에서 당장은 외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DR콩고에 있어서 FDI는 이에 관한 제도적 여건의 미비, 공공 서비스의 취약성, 농업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의 불안정 및 기반의 절대적 부족 하에서 광산개발 외에는 좀처럼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에 대한 FDI에는 토지소유 제도상의 어려움도 있다. DR콩고에서는 토지는 모두 국유이나 관습적으로 사용권의 행사는 부족장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 토지사용권에 대한 이중적 부담과 행정 절차에 있어서 투명성 결여 등의 어려움으로 특히 농업부문에 있어서 민간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 DR콩고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자도입 관련법의 개정과 외자도입촉진을 위한 행정서비스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6) 토지 소유제도

DR콩고에는 아직 전통적 토지소유제가 존재하고 있는 반면, 토지법⁸⁾은 국가를 유일한 토지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관습법에 기반하고 있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 국가 행정기관에 승인신청 전에 반드시 토지를 관장하고 있는 부족장 또는 촌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토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할 경우, 지역 개발에 대한 안목과 비전이 없는 부족장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부작용이 상존하고 있고, 다른 부족 또는 마을 출신인 사람은 토지이용에 제약을 겪게 된다. 이런 문제는 특히 동부지역과 같은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더 심각하여 농토 확보를 위한 어려움으로 지역 내 충돌이 발생하며, 소농들은 농지를 찾아서 이주를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촌장이 그 마을 토지전체에 대한 사용권을 대대로 이어받아 실질적인 소유권자의 역할을 하고 별다른 행정기관의 등록 절차 없이 농민들은 촌장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토지를 사용하기도 한다. 토지임대계약이 대부분 문서화 되어 있지 않아 토지사용권에 대한 혼돈이 발생하고, 토지의 경계나 면적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서 생기는 충돌 또한 많다(KDS and KOICA, 2013).

8) Loi n° 73-021 du 20 juillet 1973(1973.7.20. 제정, 1980.7.18. 개정 및 보완)

DR콩고의 토지 거버넌스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① 방대한 영토에 걸쳐서 인구밀도가 고르지 않아, 토지문제와 토지 관리에 있어서 공통된 목적과 방법으로 접근하기가 어렵다. ② 분쟁의 영향을 받은 동쪽과 북쪽 지역은 법의 적용 및 정부의 행정적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③ 토지의 소유 및 관리를 위한 등기 제도가 제대로 발달되지 못하고 있다. ④ 토지사용에 대해 관습적 주체와 법적권한의 이원적 특성으로 지속적 갈등이 존재한다(Ntampaka, 2008). 전통적인 토지소유제도가 아직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이원적인 토지제도는 농민들의 자유로운 토지 사용과 토지 개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토지 소유제도 및 그에 따른 토지 거버넌스가 농업생산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DR콩고의 이상과 같은 토지의 이원적 소유 관습은 토지 사유제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에 비해서 농지 활용도를 낮추게 하는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사회 기반시설 개발에 있어서는 토지 비용상 훨씬 유리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토지 소유제도는 오랜 역사를 거쳐서 형성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특히 식민지 지배를 통하여 토지를 수탈당한 역사적 경험을 가졌던 아프리카에 있어서 토지 소유제도는 극히 민감한 문제로서 어떠한 정부라도 함부로 다루기 어렵다. 토지 소유제도를 당장 바꾸기 보다는 농지의 사용을 원활하게 하고 그것이 권리로써 인정받을 수 있도록 토지 관련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농지의 이용도와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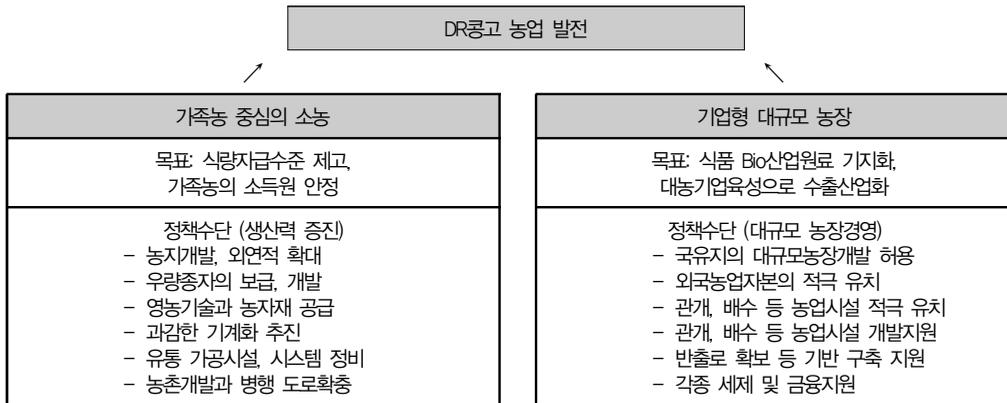
4.2.2. DR콩고 농업 발전 방향

앞서 살펴보았듯이 DR콩고는 농업발전을 위한 요건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 그러나 극히 제한된 재원으로 모두를 동시에 해결할 수는 없고, 한정된 재원을 모든 분야에 나누어 지원하면 그 효과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인 접근으로 시급한 분야에 제한된 투자를 해야 하며 재원을 집중해서 다른 부문에 그 효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DR콩고 농업발전을 위한 방향으로써 KOICA의 DR콩고 국가개발전략수립 지원 사업 보고서(KDS and KOICA, 2011)는 DR콩고의 농업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본보고서는 가족농 중심의 소농 지원 전략과 기업형 대규모 농장 지원 전략을 큰 틀로 가지고 있고 그 목표 또한 가족농 수준에서의 식량자급수준 제고와 안정적 소득원 확보 그리고 기업형 대규모 농장을 통한 식품 BIO 산업원료생산과 농업 수

출 산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위의 두 가지 목표 성취를 위하여 각각 다른 수준의 정책 수단을 <그림 2>와 같이 제시 하고 있다.

그림 2 DR콩고 농업발전 전략(Two-Track)



자료: KOICA, DR콩고 국가개발전략수립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2011.

위 보고서는 DR 콩고 농업 발전을 가족농을 중심으로 한 소농개발과 기업형 대규모 농장 개발이라는 이중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전자는 주민으로서의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그 초점이 있는 반면 후자는 국가 차원에서의 경제 개발을 위한 농산업 육성에 초점이 있다(KDS and KOICA, 2011).

DR콩고의 Two-Track 전략은 광대한 농지와 농업의 저생산성을 감안할 때, 가족농 중심의 소농 형태만으로는 필요한 농업성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고, 기업형 대규모 농장형 영농은 농업생산성을 효과적으로 제고하여 농업의 수출산업화에 기여하며, 동시에 현대적 농업기술이 소농에도 파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전략으로 보인다.

먼저, 가족농 중심의 소농 육성은 가족 단위의 식량자급 수준 제고와 소득원 안정을 목표로 한다. 현재 대부분의 농가는 전통적 방식으로 낙후된 영농방식을 택하고 있다.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농업생산, 유통 및 판매 과정에 모든 면에서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그런데 절대적인 식량 부족 상태에 있는 여건에서 우선 필요한 것이 농업 노동에 있어서 생산성을 올려서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농기구 및 농기계의 보급은 농업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런데 농기계의 보급은 적정기술적용과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중요한

전제하에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지의 수준과 농업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기자재 보급은 결국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고, 운영 및 사후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성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소농개발을 위해 농촌지도기관의 역량을 강화하여 농민의 의식개혁과 영농기술보급에 주력해야 한다. 농촌지도기관은 신제품 보급 및 환경 친화적인 영농기술을 보급하고 생산자 조직 관리, 농산물 가공 및 유통, 농기계 기술 등을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술역량 및 관리역량 개발과 주인의식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기업형 농장 개발은 대농기업 육성을 통한 수출 산업화 촉진과 식품 Bio 산업 원료기지화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현재 DR콩고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농산업단지(Agricultural Business Park)와 연관된다. 민관협력사업(PPP)으로서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대규모 농산업 단지를 조성하고자 한다. 민간기업의 참여로 광대한 농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농산물 수출역조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콩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그러나 대규모 농공단지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국내 농산물 가격하락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농들의 농산물 시장 접근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할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기업형 농장은 식민지 독립 후 방치되었던 커피, 고무, 팜오일 플랜테이션 농장의 재건 등 가족농장과 차별된 작목으로서 수출을 겨냥하여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작물생산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4.2.3. 한국과 DR콩고 농업의 국제협력 방안

한국과 DR콩고는 농업 여건에 있어서 상당히 다르다. 한국은 좁은 토지에 과밀 인구로 농산물을 상당부분 해외에 의존하면서 기술집약적인 영농을 추구하여 왔다. 반면에 DR콩고는 광대한 토지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도 및 농업생산성이 낮아 농업생산이 낮은 순위에 머물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식량 부족과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여건과 발전의 단계에 있어서의 양국의 차이는 양국의 협력에 있어서 어떠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가?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한국이 개발협력에 의하여 DR콩고의 농업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은 DR콩고와의 농업개발 협력을 통하여 어떠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전자와 관련하여, 우선 농업여건의 상이로 인하여 농업개발 전략에 있어서 한국의

경험을 DR콩고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광대한 농토를 가진 DR콩고의 경우 가족형 소농 위주의 전략 만으로서는 어렵고, 기업형 대규모 농장 방식도 아울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 농업 및 농촌 개발의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의 최근 반세기의 농업 및 농촌개발의 경험은 DR콩고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교훈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제한된 농지에서의 기술집약적인 영농에 의한 발전된 농업기술은 광대한 DR콩고의 토지에 적용되었을 경우 생산성 증대에 큰 임팩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장 외(2011)는 한국의 그간의 농업분야 발전 경험에서 볼 때, 협력 가능 분야로 다음 세 가지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 ① 생산성 향상: 한국은 종자 개량과 재배기술 개발, 투입재 확대, 기반시설 개선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왔다.
- ② 농산물 수확 후 관리, 유통, 마케팅 등 가치사슬(value chain)의 전 부문에서의 기술 개발
- ③ 새마을운동으로 대표되는 농촌개발 경험

그렇지만, 농업 및 농촌 개발에 있어서 한국의 성공적 경험이 DR콩고에 유용하다기 보다는 한국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앞으로 농업개발에 의존하여 빈곤을 극복하여야 하는 DR콩고의 입장에서 유용한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의 경험이 그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은 아니며, 그들의 여건에 맞추어 변용되어 적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후자와 관련하여, 한국으로서 DR콩고의 농업 및 농촌개발을 위한 협력을 돕는다고 하지만, 그러한 일방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한국으로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DR콩고의 광대한 농토와 다양한 기후, 다양한 식물 자원 정보에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은 온대의 좁은 농토에서의 농업생산에 머물러 왔으나, DR콩고와의 농업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기후 및 토지 조건하에서의 영농기술과 종자 개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우리의 농업생산의 외연적 확대 가능성이다. 대규모 토지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 영농에 관한 양국의 협력은 한국에게 새로운 농업 투자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농지의 제약으로 식량 안보상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바, 양국의 농업 분야 협력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식량 안보의 취약성을 완화하고 우리의 농업기술, 농기계, 농업기자재의 투자를 위한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농업은 아프리카의 빈곤감소 및 기아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한 전략분야이다. 특히 인구의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DR콩고는 풍부한 농업노동인구와 8천만 ha에 달하는 경작가능토지, 풍부한 어로자원을 포함한 농업에 유리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의 70 %이상이 식량부족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DR콩고 정부는 식량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농업농촌개발 정책을 수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하지 못하여 아직도 식량부족과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많은 해외원조기관의 지원노력이 있었으나 깊이 뿌리박힌 부정부패와 주인의식의 부재, 현지 공무원의 역량부족과 취약한 거버넌스와 기반 등으로 지원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크게 기대할 수 없었다.

DR콩고의 농업 및 농촌의 문제는 만성적인 농업생산성 저하와 빈곤으로 인한 농민의 노동 의욕 상실, 농업발전을 위한 요소의 총체적인 결핍으로 인한 것이며 이들은 복합적으로 서로 작용하고 있다. 제한된 국가재원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우선순위를 두어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DR콩고의 식량위기와 농촌사회의 빈곤퇴치에 초점을 맞추어 농업생산증대를 위한 투자를 증대시키고 이를 위한 제도적, 인적역량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가족농 중심의 소농개발을 위하여 농기계화와 경작지 확대를 하고 농촌지도서비스를 통하여 농민의 식전환과 농업기술교육에 힘써야 한다. 또한 기업형 대형농장을 조성하여 식량수출을 도모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농산물 수확 후 관리 및 농가공, 유통 및 마케팅 개선으로 농산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한국은 좁은 경작면적에서도 기술집약적인 영농, 농업 R&D 및 보급선진화, 효과적인 농지 개간 및 농촌개발로 높은 식량자급률을 높여 왔다. 이런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 한국은 향후 DR콩고의 농업농촌개발을 위해 생산성향상, 농산물 가치사슬의 전 부문에 있어서의 기술 개발지원, 농촌지역개발 지원 등에 있어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DR콩고의 농업발전 지원을 통하여 한국은 농업 기술 교류 및 축적을 하고, 아프리카 농업발전에 대한 한국의 국가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R콩고에 대한 한국의 농업분야 협력관계 심화는 한국의 농업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대한 농토, 다양한 기후, 그에 따른 다양한 식물자원은 한국 농업이 그 동안 가꾸어 온 농업기술 및 종자 개발 등에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쌓아온 농업기자재,

농업 기술의 새로운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 2012. 「콩고민주공화국 국가협력전략(CPS) 2012-2015」.
- 한국개발전략연구소(KDS). 2011. 「콩고민주공화국 국가개발전략수립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개발전략연구소(KDS). 2013. 「DR콩고 농촌종합개발 기본계획수립(BDS) 최종보고서」.
한국국제협력단.
- 허장, 이대섭. 2011. 「농림수산분야 발전경험 및 기술을 활용한 국제협력 모델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AfDB. 2013. Country Strategy Paper 2013-2017 (DRC). AfDB.
- CEPAS. 2011. Atlas de l'organisation administrative de la RDC. CEPAS.
- DRC government. 2010. Programme National de Sécurité Alimentaire (PNSA). DRC government.
- DRC government. 2012. Programme d'Action du Gouvernement 2012-2016. DRC government.
- DRC government. 2012. L'Agriculture Congolaise en Quelques Chiffres. Service National des
Statistiques Agricole (SNSA). DRC government.
- DRC government. 2013. Plan National d'Investissement Agricole 2013-2020. DRC government.
- Goldberg, R., C. Knoop and D. Petkoski. 2013. Seeding Growth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Harvard Business School Publishing N9-914-401.
- IMF. 2013. Making Monetary Policy More Effective: The Case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WP/13/226). IMF.
- Ntampaka, C. 2008. Gouvernance Foncière en Afrique Central. FAO.
- USGS. 2011. Minerals Yearbook. USGS.
- World Bank. 2006.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Agricultural Sector Review. World Bank.
- World Bank. 2007. Poverty Reduction Strategy Report (PRSP). World Bank.
- World Bank. 2008. DRC: Implications of recent food price increases and policy options. World Bank.
- World Bank. 2012. Resilience of an African Giant. World Bank.
- World Bank. 2013. Country Assistance Strategy for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for the Period
FY2013-FY2016. World Bank.

참고사이트

CIA. The World Factbook (www.cia.gov)

EIU. Food Security Index (foodsecurityindex.eiu.com)

FAO. FAOSTAT (www.faostat.org)

IFPRI. Global Hunger Index (www.ifpri.org)

OECD Aid Statistics (www.oecd.org/dac/stats)

UNDP Human Development Index (www.undp.org)

World Bank. Country Data (data.worldbank.org/country)

World Bank.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info.worldbank.org/governance/wgi)